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최 훈 석[†] 이 하 연¹⁾ 권 영 미²⁾ 박 주 화³⁾

본 연구는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규정하고,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총 3,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1(N = 1,500)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척도(ATU-K)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였고, 진보-보수 정치성향 및 한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조사 2(N = 1,500)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의도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ATU-K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TU-K 척도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연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통일,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지향 행동의도, 통일연구, 통일정책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1)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BK21 교육연구팀, 박사후연구원

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3)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전국 규모의 인식 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조사들은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조사를 시행하는 기관마다 편의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조사에서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개념적 속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사 결과의 해석이나 정책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 역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일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표상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안정적인 구조를 지닌 하나의 태도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정의되며, 대상과 관련된 개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태도라는 구성개념은 집단 간 갈등 및 화해의 심리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고려하면 (Bar-Tal & Halperin, 2013), 남북 간 갈등 해소와 화해에 있어서도 태도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은 단순히 정치·경제적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통일의 과정 및 통일 이후 국민들의 심리적 통합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한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예: 통일 관련 세금 납부,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등)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태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규정하여 통일태도 척도(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이하 ATU-K)를 개발하고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국내 조사연구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측정 방식 개관

국내에서 실시된 통일 관련 인식 조사는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관련된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연구소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조사연구 개관은 은기수, 2010; 정은미, 2013 참조), 이들 중 일부는 일반 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일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측정하는 유형의 조사가 증가하였다. 이 조사들은 남북관계에 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관련 구체적 정책에 대한 태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남북 교류와 화해에 관한 인식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일부 문항들을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김지범 등(2019)에서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고, 김학재 등(2020)은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통일의

이유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이상적인 통일의 추진 방식 및 시기, 희망하는 통일 체제 유형, 대북 사안별 시급성 지각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박주화, 이민규, 조원빈 (2017), 박주화 등(2018)의 조사에서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일 문항에 더해,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예: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통일 관련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또한 박주화 등(2019)의 조사에서는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단일 국가 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예: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처럼 기존 통일 관련 인식 조사들은 조사 기관마다 상이한 문항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기존 조사들은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 표상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나 구체적인 표상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남북 통일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해석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떠올리는 표상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응답자들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기존 조사들에서는 남북 통일의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남북화해, 국가연합, 평화유지 등 다양한 표상에 근거하여 저마다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측정 도구로서 유용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와 척도 내에서 통일의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응답자들이 문항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수의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통일태도를 측정하였다. 남북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은 편의성의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구성개념의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단일 문항으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과는 별개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은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한 반면,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김학재 등, 2020). 따라서 단일 문항으로부터 얻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이나, 전반적으로 통일에 찬성/반대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한편 지표만으로는 국민들이 왜 통일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이에 더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과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문항은 서로 상관관계는 있으나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할 때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영향을 미치거나, 통일이 가져올 이득과 손해를 현 상태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편익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 전쟁과 평화에 관한 태도, 남북 간 정세 등 다양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는 상위수준의 처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의 영향으로 결정된 하나의 결과로서의 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에 대한 전반적 찬성/반대 응답만을 얻는 방식으로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통일 관련 신념의 구체적 내용과 구조, 통일이라는 심적 표상과 연합된 구체적 정서 경험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복수 문항을 사용한 최근 조사들에서도 엄밀한 이론적 기반을 지닌 태도 척도를 구성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관련 정책지지, 통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 통일관련 행동의도 등을 묻는 문항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단일 문항 측정 방식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는 있으나, 조사 도구의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 점수가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심리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 개념

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이 때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에는 일관성(consistency) 및 조리성(coherence)이 있어야 한다(Gardner, 1996).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이해하고, 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Fabrigar, MacDonald, & Wegener, 2005; Krosnick, Judd, & Wittenbrink, 2005).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핵심 차원

태도의 내적 구조에 초점을 두고 태도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 경향성 요인으로 구성되는 다성분 개념으로 정의한다(Eagly & Chaiken, 1998; Rosenberg & Hovland, 1960). 인지 요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지식 및 주관적 지각을 반영하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념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정서 요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 경험을 반영하며, 쾌-불쾌의 포괄적인 느낌 외에도 혐오, 자랑스러움, 분노 등 특수한 정서 경험을 수반한다. 행동 요인은 태도 대상과 관련된 행동 경향성과 행동의도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접근 경향성과 관련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대상으로부터의 회피 경향성과 관련된다. 이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심리 및 행동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일정 정도 관련성은 있으나 독립적인 개념이며, 세 구성요소 간에는 통상 중간 정도의 상관관

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 요인을 태도의 구성개념에 포함하는 관점과 달리,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일차원의 전반적인 평가 반응으로, 그리고 행동은 태도의 결과로 취급하는 인과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합리적 행위이론은 행동 차원을 실제 행동과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로 세분화하고, 행동의도가 태도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행위이론 및 그로부터 발전한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은 태도의 기대×가치 모형(Rosenberg, 1953)을 근간으로 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태도는 태도 대상에 대한 그 사람의 신념의 합수라고 가정한다. 이때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그 대상이 야기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기대)과 해당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가치) 간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태도 대상이 특정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수록 개인은 그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을 취할 행동의도를 높이고, 그 결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태도를 대상에 연합된 기대와 가치의 상승적 총화로 보는 기대×가치 모형은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태도이론일 뿐만 아니라(Feather, 1982), 동기(Atkinson, 1958), 사회학습(Rotter, 1954), 의사결정(Abelson & Levi, 1985), 직무만족과 직업선택(Mitchell, 1974) 등 다양한 장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Eagly & Chaiken, 1998).

기대×가치 모형에 기반한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위이론은 모두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신념이 태도의 핵심 구성 성분이라고 가정하는 인지적 태도 이론이다. 이에 비해서, 태도의 정서 성분을 강조하는 관점에 따르면 태도의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두 요인 각각의 역할과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Abelson, Kinder, Peters, & Fiske, 1982). 태도의 내적 구조를 이해할 때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 정서 경험은 인지적 요인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인지적 요인은 대상에 관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신념들과 지식 정보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 지닌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신념과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신념 모두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개인의 정서 경험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값으로 구성되는 보다 단순화된 감정을 반영한다. 또한, 인지적 요인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나 기존 신념의 변화 등 내·외적 요인에 의해 그 구조 및 내용이 변화하는 반면, 대상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Ajzen, 2001; Eagly & Chaiken, 1998; Edwards, 1990).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헌혈이나 대학입학 시험과 같은 사안들에서는 태도의 인지 요인이 정서 요인에 비해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잘 예측하는 반면(예: Breckler & Wiggins, 1989), 정치인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태도는 인지 요인보다 정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예: Abelson et al., 1982; 이에 대한 개관은 Sears, 2001 참조).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집단간 화해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외집단에 관한 인식에 해당하는 인지 요인과 복수심이나 증오와 같은 정서 요인을 태도 척도에 함께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tammell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형성과 유지 및 변화에서 인지적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대×가치 모형과 정서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인지와 정서 두 성분을 통일 태도 척도에 반영함으로써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태도가 주로 어떤 성분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 받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그리고 통일 관련 행동 성분은 통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 개념화하고, 통일 관련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준거변수로 규정하였다.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

남북 통일의 개념적 정의

국내에서 실시된 통일인식 조사들에서 통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북 통일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김학재 등(2020)에 따르면, 통일의 이미지를 물었을 때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전체 응답자의 60.6%),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0.0%),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15.0%)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즉,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북 통일을 떠올렸을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형태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남북 통일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응답자들이 통일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동일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통일에 관한 인지 및 정서 요인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기대×가치 모형(Rosenberg, 1953) 및 이에 기반한 합리적 행위 이론(Fishbein & Ajzen, 1975)을 토대로, 남북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신념(가치)과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곱에 의해 통일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또는 낮게 지각하는지, 또한 이 결과를 얼마나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지에 따라서 남북 통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이 가정에 남북 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개인의 기대 및 가치를 측정하여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남북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결과 사건들은 통일을 지지/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선행연구(김학재 등, 2020; Lee & Lee, 2019)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남북 통일에 관한 태도의 인지 차원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남북 통일을 떠올렸을 때 느끼는 정서 경험에 따라서 개인이 취하게 될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정서 요인을 척도

에 포함시켰다.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정서 경험은 긍정 또는 부정의 전반적인 감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를 구체적인 내용 정서로 세분할 수도 있다. 남북 통일에 관한 정서 경험 역시 전반적인 정적 또는 부적 감정과 구체적인 내용 정서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을 떠올릴 때의 전반적인 감정은 남북 통일에 대한 정적 또는 부적 감정을 반영하지만, 그에 따른 특정 행동 반응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구체적인 정서 경험은 그와 연합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슬픔’ 정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힘이 강하지 않은 반면, ‘공포’ 정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을 회피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을 유발한다. 또한 ‘분노’ 정서는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 또는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대상에 작용을 가하여 해당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동기화 한다(참조: Schimmack & Crites, Jr., 200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긍정/부정 정서의 측면과 구체적인 내용 정서의 측면에서 모두 분석할 수 있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특히,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 정서의 활성화 수준이 대상에 대한 접근-회피 행동을 예측한다(Russell, 2009; Russell & Pratt, 1980)는 점에 착안하여 긍정/부정 정서 중에서도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정서들을 포함하였다.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의 수렴 요인

현재까지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타당화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통일인식조사에서 자주 사용하던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 문항과 박주화

등(2019)의 전국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1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와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 문항, 그리고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여 ATU-K 척도가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하던 통일태도 측정도구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의 변별 요인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와 개념적으로 구분될 것으로 기대하는 변별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는 것으로 보고된 진보-보수 정치성향과 민족정체성을 선정하여 조사에 포함시켰다.

진보-보수 정치성향은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에 있는 주요 변수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국민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예: 윤광일, 2019; 이내영, 2014).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진보-보수 정치성향이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하는지 점검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치성향 이외에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통일과 연합된 개인의 정서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통일태도는 진보-보수 정치성향과 상관을 보이지만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변별 요인인 사회 정체성은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핵심변수이다(Hogg, Abrams,

& Brewer, 2017; Tajfel & Turner, 1986). 특히 한반도와 같은 독특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정체성 이외에도 남과 북을 포괄하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민족정체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한민족이라는 실제적 당위성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족정체성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간의 상관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에 대한 태도의 준거(공존) 요인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할 의도가 높고, 그에 따라 실제로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통일과 관련된 접근 또는 회피 행동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거나 통일을 지지하는 행동을 더 자주 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통일을 지향하는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준거변수로 구성했다. 특히 통일을 지지하는 행동은 개인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집합적 수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통일지향 개인행동과,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통일지향 집단행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태도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ATU-K 척도가 실제로도 기존의 측정 방식보다 유용한 측정 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 및 변별 요인과 준거변수와의 상관에 있어서 ATU-K 척도와 박주화 등(2019)에서 사용한 통일태도 척도 및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 문항의 회귀계수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 방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69세 이하 성인 총 3,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12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모집했으며, 응답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5\%$). 총 3,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1,500명은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조사 1)에 참여했고, 나머지 1,500명은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조사 2)에 참여했다. 조사 1과 조사 2 모두 질문지 처음과 마지막에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거주지, 출신지, 최종 학력, 직업,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 가족 소득 등)를 측정하였다.

조사 1: 측정 변수

통일에 대한 태도(ATU-K)

통일 관련 선행연구(김학재 등, 2020; 통박주화 등, 2017, 2018; Lee & Lee, 2019)를 토대로 인지와 정서 차원에 해당하는 총 19문항을 포함시켰다(표 1 참조). 인지 차원에서는 ‘국력 강화’,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에 각각 해당하는 세 개 문항(총 아홉 문항)을 포함했다. 각 문항에서 남북 통일이 일으키는 여러 결과에 대한 기대(예: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1 =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 5 =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와 가치(1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5 = 매우 바람직하다)를 각각 묻고, 기대 점수와 가치 점수를 곱하여 해당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출하였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정서 차원에서는 남북 통일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정서를 긍정 정서 다섯 문항(예: 설레다, 즐겁다)과 부정 정서 다섯 문항(예: 불안하다, 무섭다)을 사용하였다(1 =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5 =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정서 용어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대표 정서의 정부성(긍정/부정)과 활성화(활동성) 차원을 고려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서 모두 높은 활성화 수준을 지닌 정서 단어들로 선별하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묻는 순서는 무선회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ATU-K)의 수렴 요인

박주화 등(2019)에서 사용한 남북한이 단일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11개

문항을 사용했다(이하 KINU-통일태도). 이 척도는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데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여섯 개 문항(예: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과 남북한이 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다섯 개 문항(예: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으로 구성되었다(역점수화).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11개 문항 평균을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82$).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통일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묻기 위해 사용된 단일 문항(“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 전적으로 반대 ~ 7 = 전적으로 찬성)을 조사에 포함시켰다(이하 통일 찬/반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ATU-K)의 변별 요인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제도 등), 정치적, 그리고 전반적 수준에서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을 물었다(Skitka, Mullen, Griffin, Hutchinson, & Chamberlin, 2002). 응답자들은 총 일곱 개의 범주(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 본인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숫자가 클수록 보수적인 것으로 점수화(1점 ~ 7점)하여 네 개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89$)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은 Hogg와 Hains(1996)의 집단동일시 척도(최훈석 외, 2019)에서 네 개 문항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예: “당신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

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당신은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1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7 = 매우 강하게 느낀다. 분석에는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7$)을 사용했다.

조사 2: 측정 변수

조사 1에 사용한 ATU-K 척도 총 19개 문항을 예측 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가 기존 국내 조사에서 사용된 통일태도 측정도구에 비해 통일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용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1에서 사용한 KINU-통일태도 척도 11문항과 다수 국내 조사에서 사용한 통일 찬/반태도 단일 문항을 포함했다.

준거변수는 선행연구(Shnabel, Nadler, Ullrich, Dovidio, & Carmi, 2009)를 바탕으로, 통일을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할 의향을 묻는 일곱 개 문항을 사용했다(예: “통일을 위해서 소소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글을 나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 1 = 전혀 없다 ~ 7 = 매우 많다). 분석에는 일곱 개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96$)하여 사용했다. 통일지향 집단행동은 남북 통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여섯 개 문항(예: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북한과의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1 = 전혀 없다 ~ 7 = 매우 많다)을 사용했고, 분석은 전체 문항 평균을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96$). 측정된 전체 13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Direct Oblimin 사각회전 실시) 결과 통일지향 개인행

동과 집단행동이 두 요인(개인행동 요인 설명량 73.14%, 집단행동 요인 설명량 9.40%)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72 이상이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1의 참가자들을 무선적으로 반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n = 750$)과 확인적 요인분석($n = 750$)을 실시하였다. ATU-K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1의 전체 참가자($N = 1,500$)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2의 자료($N = 1,500$)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1: 결과¹⁾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의 구성 타당도

조사 1($N = 1,500$)에서 ATU-K 문항들의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조사 1의 반분 표집($n = 750$)에서 얻은 자료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통해 인지 및 정서 요인으로 구성된 ATU-K 척도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 회전은 Direct Oblimin 사각회전을 적용하였다. 분석

1) 본 논문에서 보고된 분석 결과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모두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성별 및 연령 별 하위 집단 분석결과를 연구자들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ATU-K 척도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 = 1,500$)

차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인지	국력 강화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12.60	7.20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15.04	6.99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3.83	6.73
	정체성 보존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15.89	7.08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3.67	7.13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4.17	6.97
	평화 증진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17.14	7.27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14.72	7.15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15.77	6.80
정서	긍정 정서	설레다.	3.07	1.13
		즐겁다.	2.93	1.10
		반갑다.	3.27	1.13
		기쁘다.	3.23	1.15
		행복하다.	2.94	1.11
	부정 정서	거부감이 든다.	2.71	1.06
		화가 난다.	2.17	1.03
		불안하다.	2.93	1.17
		무섭다.	2.63	1.14
	역겹다.	1.91	1.03	

참조: 통일에 대한 인지 차원 평가값(기대×가치) 범위: 1 ~ 25 (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통일에 대한 정서 차원 점수 범위: 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5(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결과, 19개 문항이 세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1요인(요인 설명량 56.33%; 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3$,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 .84, .90, .88$, 순서대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요인)은 '통일에 대한 인지(평가)', 2요인(요인 설명량 10.12%, Cronbach's $\alpha = .90$)은 '부정 정서', 3요인(요인 설명량 6.88%, Cronbach's $\alpha = .96$)은 '긍정 정서'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는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연구모형을 토대로 19개 문항이 위계적 2층 요인구조(1층: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세 요인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두 요인, 총 다섯 요인; 2층: 인지와 정서의 두 요인)를 지니는지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확인적 요인분석은 나머지 반분 표집($n = 750$)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표 2. ATU-K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 =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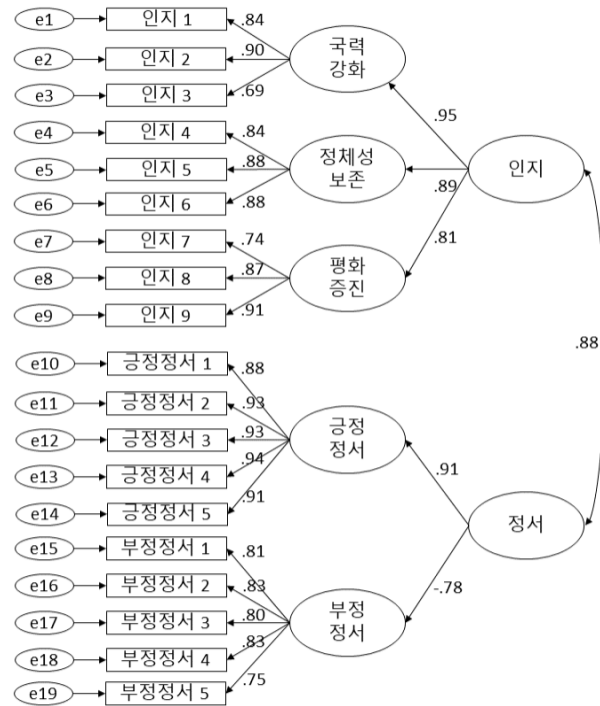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인지 (평가)	부정 정서	긍정 정서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0.87	-	-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0.85	-	-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킨다.	0.85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0.75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75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0.70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0.67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0.67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0.50	-	-
무섭다.	-	0.90	-
불안하다.	-	0.85	-
화가 난다.	-	0.82	-
거부감이 든다.	-	0.77	-
역겹다.	-	0.76	-
즐겁다.	-	-	0.93
설레다.	-	-	0.92
행복하다.	-	-	0.90
기쁘다.	-	-	0.84
반갑다.	-	-	0.81

참조: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0 이하인 경우는 생략(-);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 크기순.

likelihood)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2층 연구 모형이 좋은 모형합치도를 보였다(Bentler & Bonnett, 1980; Hu & Bentler, 1999), $X^2(146) = 790.21$ ($p < .001$), TLI = .942, CFI = .951, RMSEA (90% CI) = .077 (.072, .082), SRMR = .038.

요약하면, 태도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남북 통일에 대한 태

도는 인지와 정서의 하위 차원들로 구성되며, 인지 차원은 남북 통일과 연합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에 대한 신념들로 구분되고, 정서 차원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경험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하여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 분석에서는, 19개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참조: 요인부하량 및 요인간 상관은 표준화 값.

그림 1. ATU-K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 = 750$)

z-score)를 평균하여(부정 정서의 경우 역점수화 하여 사용) ‘통일에 대한 태도’ 값으로 사용하였다(19개 전체 문항 Cronbach's $\alpha = .96$).

ATU-K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조사 1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ATU-K 척도가 국내에서 행해진 기존 조사들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도구들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ATU-K 척도는 KINU-통일태도 척도 및 통일 찬/반태도 문항과 각각 .64, .68의 상관을 보여서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값이 기존 도구들로 측정된 값과 수렴함을 알

수 있다. ATU-K 통일태도와 변별 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진보-보수 정치성향, 민족정체성과 ATU-K 척도 점수는 중간 크기의 상관($-.35, .44$, 순서대로 진보-보수 정치성향, 민족정체성과 ATU-K와의 상관계수)을 보였다. 그러나 ATU-K와 변별 요인과의 상관이 유의하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VE/SV 값이 ATU-K와 정치성향(ATU-K에서는 4.62, 정치성향에서는 5.86), ATU-K와 민족정체성(ATU-K에서는 2.31, 민족정체성에서는 3.81) 간 비교에서 모두 1을 넘어서서 구성개념 간 변별성이 관찰되었다(AVE/SV 값의 산출과 변별타당도 해석에 관해서는 Rönkkö & Cho, 2020 참조). 끝으로, ATU-K로 측정된 통일태도는 KINU-통일태도

표 3. 조사 1 측정변수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N = 1,500$)

변수명	1	2	3	4	5	6	7
1. ATU-K (총점)	-	.92**	.94**	.64**	.68**	-.35**	.44**
2. ATU-K: 인지		-	.72**	.54**	.59**	-.30**	.41**
3. ATU-K: 정서			-	.63**	.67**	-.34**	.41**
4. KINU-통일태도				-	.71**	-.14**	.41**
5. 통일 찬/반태도					-	.20**	.37**
6. 진보-보수성향						-	-.05*
7. 민족정체성							-
평균 (표준편차)	0.00 (0.75)	14.76 (5.67)	3.31 (0.89)	2.81 (0.68)	4.44 (1.66)	3.77 (1.01)	4.48 (1.26)

참조: * $p < .05$, ** $p < .01$; ATU-K: 인지 차원 점수범위 1 ~ 25 (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ATU-K: 정서 차원은 부정정서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긍정정서 문항과 평균화(점수가 클수록 긍정정서 의미).

표 4. ATU-K 통일태도, KINU-통일태도, 통일 찬/반태도와 변별요인과의 상관값 비교($N = 1,500$)

	진보-보수 정치성향	민족정체성
ATU-K	-.35**	.44**
KINU-통일태도척도	-.14**	.41**
통일 찬/반태도	.20**	.37**
z-score (ATU-K vs. KINU)	-9.96**	1.64
z-score (ATU-K vs. 찬/반)	-7.51**	4.08**

참조: ** $p < .01$.

척도나 통일 찬/반태도 문항으로 측정된 값보다 유관변수들과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계수의 차이도 민족정체성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조사 2: 결과

ATU-K 척도의 준거(공존)타당도 검증

조사 2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뒤 ATU-K 척도 점수가 준거변수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도 ATU-K 통일태도는 준거변수에서 높은 수준의 설명량을 보이는

표 5. 조사 2 측정변수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N = 1,500$)

변수명	1	2	3	4	5	6	7
1. ATU-K (총점)	-	.93**	.94**	.64**	.69**	.54**	.46**
2. ATU-K: 인지		-	.75**	.56**	.60**	.47**	.39**
3. ATU-K: 정서			-	.63**	.68**	.54**	.46**
4. KINU-통일태도				-	.73**	.50**	.41**
5. 통일 찬/반태도					-	.50**	.42**
6. 통일행동: 개인						-	.78**
7. 통일행동: 집단							-
평균	0.00	14.67	3.28	2.81	4.45	2.96	2.41
(표준편차)	(0.75)	(5.56)	(0.90)	(0.66)	(1.71)	(1.35)	(1.35)

참조: ** $p < .01$ ATU-K: ATU-K: 인지 차원 점수범위 1 ~ 25 (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ATU-K: 정서 차원은 부정정서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긍정정서 문항과 평균화(점수가 클수록 긍정정서 의미).

것으로 나타났다(ATU-K 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 24%, 18%, 순서대로 통일지향 개인행동과 통일지향 집단행동).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통일태도가 응답자들의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잘 예측함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했다.

ATU-K 척도로 측정한 전반적인 통일태도가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분석

표 6. ATU-K 통일태도의 통일지향 행동의도(개인 및 집단) 예측($N = 1,500$)

		통일지향 행동: 개인		통일지향 행동: 집단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0.09**	
	연령	0.21**	.06**	0.18**	.04**
	소득수준	0.03		0.04	
2단계	성별	-0.04		-0.01	
	연령	0.11**	.30**	0.09**	.22**
	소득수준	0.02		0.03	
	ATU-K (총점)	0.51**		0.4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24**		.18**

참조: ** $p < .01$.

에 더해서, 통일태도의 각 하위 차원과 준거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을 구성하는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차원과, 정서 차원을 구성하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각각이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ATU-K 통일태도의 다섯 개 하위 차원(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세 요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두 요인) 점수를 각각 투입하였다. 예측변수들은 모두 평균중심화(mean-centered) 값을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지향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모두에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들이나 부정 정서 차원의 예측력은 미미한 반면 통일에 대한 긍정 정서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강하게 예측했다. 정서 경험 중에서도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정서는 정서를 유발한 대상에 대한 접근(긍정 정서의 경우) 또는 회피(부정 정서의 경우) 행동 지향성을 강하게 유발한다. 따라서 통일지향 행동은 강한 활성화 정서 경험에 의해, 특히 접근 행동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강한 정적 정서 경험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결과는 표 7에 제시했다.

표 7. ATU-K 통일태도 하위차원들의 통일지향 행동의도(개인 및 집단) 예측($N = 1,500$)

		통일지향 행동: 개인		통일지향 행동: 집단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0.09**	
	연령	0.21**	.06**	0.18**	.04**
	소득수준	0.03		0.04	
2단계	성별	-0.03		0.00	
	연령	0.10**		0.08**	
	소득수준	0.01		0.03	
	ATU-K: 국력강화	0.05	.35**	0.01	.25**
	ATU-K: 정체성보존	0.15**		0.06	
	ATU-K: 평화증진	-0.06		-0.01	
	ATU-K: 긍정정서	0.44**		0.41**	
	ATU-K: 부정정서	0.00		-0.0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28**		.21**

참조: ** $p < .01$.

ATU-K 척도와 기존 통일태도 척도의 준거변수에 대한 예측 비교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KINU) 통일태도 척도, 그리고 통일 찬/반태도 단일 문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통일지향 행동의도 예측에 있어서 ATU-K

표 8. ATU-K, KINU 통일태도의 통일지향 행동의도 예측($N = 1,500$)

		통일지향 행동: 개인		통일지향 행동: 집단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0.09**	
	연령	0.21**	.06**	0.18**	.04**
	소득수준	0.03		0.04	
2단계	성별	-0.02		0.01	
	연령	0.10**		0.09**	
	소득수준	0.02	.34**	0.03	.24**
	ATU-K 통일태도	0.36**		0.32**	
	KINU-통일태도	0.25**		0.19**	
2단계 증분설명량(ΔR^2)		.28**		.20**	

참조: ** $p < .01$.표 9. ATU-K, 통일 찬/반 단일 문항 통일태도의 통일지향 행동의도 예측($N = 1,500$)

		통일지향 행동: 개인		통일지향 행동: 집단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회귀계수 (β)	모형설명량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0.09**	
	연령	0.21**	.06**	0.18**	.04**
	소득수준	0.03		0.04	
2단계	성별	-0.03		0.00	
	연령	0.10**		0.09**	
	소득수준	0.02	.33**	0.03	.24**
	ATU-K 통일태도	0.35**		0.30**	
	통일 찬/반 태도	0.23**		0.2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27**		.20**	

참조: ** $p < .01$.

표 10. 통일지향 행동의도 예측에서 ATU-K와 KINU-통일태도 비교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β) 95% 신뢰구간						회귀계수 간 차이 검증 유의수준
	ATU-K 통일태도			KINU-통일태도			
	최소값	점추정값	최대값	최소값	점추정값	최대값	
7. 통일행동: 개인	0.29	0.36	0.41	0.20	0.25	0.32	$p < .05$
8. 통일행동: 집단	0.27	0.32	0.38	0.12	0.19	0.25	$p < .05$

참조: 신뢰구간 bootstrapping 1,000회 재추출.

표 11. 통일지향 행동의도 예측에서 ATU-K와 통일 찬/반 태도 단일 문항 비교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β) 95% 신뢰구간						회귀계수 간 차이 검증 유의수준
	ATU-K 통일태도			통일 찬/반 태도			
	최소값	점추정값	최대값	최소값	점추정값	최대값	
통일행동: 개인	0.29	0.35	0.42	0.17	0.23	0.30	p < .05
통일행동: 집단	0.24	0.30	0.36	0.13	0.20	0.26	p < .05

참조: 신뢰구간 bootstrapping 1,000회 재추출.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ATU-K 총점과 KINU-통일태도 총점 또는 통일 찬/반태도 단일 문항 점수를 투입하였다. 예측변수들은 모두 평균중심화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및 집단 행동의도 모두에서 일관되게 KINU-통일태도나 통일 찬/반 태도 단일 문항보다 ATU-K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강했다(표준화된 회귀계수 비교는 Cumming, 2009 에서 제안한 방식을 따름). 이는 ATU-K를 통해 측정된 태도가 기존 통일태도 측정도구나 통일 찬/반태도 단일 문항보다 준거 요인들을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표 8부터 표 11에 제시했다.

논 의

남북 통일의 시대적 중요성과 학술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일부 공공기관과 언론사, 연구소에서 매년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통일 관련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기보다는 조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태도를 측정하거나 통일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간편 문항들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 통일인식 조사에서 사용된 통일에 대한 태도측정 문항들은 측정 도구로서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 또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경우, 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나 통일태도라는 추상적 구성개념의 복잡한 구조 및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이 값들을 취합하여 통일태도의 지표로 삼은 일부 조사들의 경우에도,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인지적 신념과 감정, 행동 경향성 등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단면들을 모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측정 도구로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들과 집단간 화해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를 개발하고, 전국에서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모집된 3,00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ATU-K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고, 이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는 기존 국내 조사에서 사용된 통일태도 측정도구들과 개념적으로 수렴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인식과 상관된 변수들(진보-보수 정치성향, 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에 더해, 기존 조사도구(통일연구원 척도 및 통일 찬/반 단일문항)에 비해서 통일 관련 주요 준거변수들에 대한 예측력도 높았다.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

기존 통일 관련 조사도구들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오류 중 하나는 통일에 관한 태도와

이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의 구체성 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문항들이 조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도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라는 추상적/전반적 수준에서 측정하고, 조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은 통일에 관한 정보습득 의도,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도, 통일경비 부담의도, 통일관련 정책 지지 등과 같은 구체적 수준의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태도-행동 측정의 구체성 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는 통일의 표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도와 행동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 도구들에 비해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개선된 도구이다. 이는 ATU-K 척도의 통일 관련 준거변수 설명변량이 크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TU-K 척도가 다른 통일태도 측정도구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강점은 이론-기반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척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가설적 구성개념의 핵심 요인을 주요 태도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한 후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에 따라 장차 ATU-K 척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양화시켜 비교하거나, 시간의 경과 또는 외부 상황요인의 영향에 따라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태도 변화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다. ATU-K 척도를 활용한 개인 간, 개인 내 통일태도 비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통일에 대한 표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타당화된 ATU-K 척도를 각종 조사와 연구에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통일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다양한

하위 집단들로부터 취합한 통일태도를 비교하여 통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집단별 통일 관련 규범 및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장차 국내에서 ATU-K 척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이나 남북 관련 정세변화, 외부 상황적 요인 등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다.

둘째, ATU-K 척도는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일태도의 준거변수들을 잘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통일태도가 처음 형성될 때와 이후 태도가 변화할 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북 통일이라는 대상은 정서적인 반응과 보다 강하게 연합되어 있을 수 있다. 분단은 민족의 ‘아픔’이고 ‘슬픔’이며, 통일은 민족의 ‘희망’이자 ‘소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북 통일과 연합된 이득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일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개인적, 사회적 이득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통일태도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도록 호소하는 것보다, 통일로 인한 이점들을 들어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감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와 인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과도 일관된다. 예를 들어 정서-기반 태도의 경우 인지적인 방식보다는 감

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Edwards, 1990). 이처럼 ATU-K 척도는 통일태도의 두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통일 관련 담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관련 공공정책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통일교육에 관한 제언은 채정민, 김종남, 2008 참조). 본 연구에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각 차원과 준거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ATU-K 척도의 하위차원들 가운데 긍정 정서 요인이 통일지향 행동에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도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대상에 대한 긍정 정서 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지향 행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통일관련 정책 입안 및 실행, 교육 장면에 활용함에 있어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점화된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ATU-K 척도는 통일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결과들을 다양한 단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단순히 남북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저에 있는 구체적인 신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남북 통일에 관해 유사한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간에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한국의 국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통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신념에 가

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더 효과적인 설득 및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통일 정책 입안이나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유한 통일 관련 신념의 다양한 단면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의 통일지향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과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보고식 태도 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사건이 지나는 사회적/정치적 의의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같은 문제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그로부터 태도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태도 외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Ajzen & Fishbein, 2005). 따라서, 자기보고식 태도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나 암묵적 측정 기법을 활용하는 등(Bohner & Dickel, 2011)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와와의 관계를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토대로 최소한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는 충분한 이슈 특출성(issue salience; Krosnick, Boninger, Chuang, Berent, & Carnot, 1993; Lavine, Sullivan, Borgida, & Thomsen, 1996)을 지닌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안정적인 심리적 구성개념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에 대한 태도(긍/부정성)에 더해 태도 강도(strength)를 함께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태도 강도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와 그 대상에 대한 태도의 ‘강도’는 독립적인 개념이다. 즉,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응답자가 통일에 대해 ‘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강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태도에 대한 확신성이 높을수록, 그 태도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록, 그 태도를 쉽게 마음에 떠올릴 수 있을수록, 태도 대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 정보를 지니고 있을수록, 그리고 태도 차원 간 방향성이 일관될수록 강하다. 그리고, 강한 태도는 약한 태도에 비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설득 시도에 저항하며, 행동을 잘 예측하고,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Krosnick & Petty, 2014). 특히 대상에 대한 신념과 정서경험의 긍정/부정성이 일관될 때 태도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에서 일관성이 낮은 사람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보이는 행동특징을 알아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가적 태도는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유하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행동예측에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참조: Thompson, Zanna, & Griffin, 1995). 따라서 통일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지니는 양가적 태도를 추가로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에

만 초점을 두고 통일태도의 인지적 평가차원을 구성하였으므로 통일이 개인에게 초래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비록 ATU-K 척도의 정서문항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어느 정도 포착되기는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통일의 편익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통일에 관해 응답자들이 떠올리는 인지적 표상을 통일하기 위해 통일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절차는 가설적 구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규정한 형태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절차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단일한 국가의 수립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변화, 국내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상과 신념 구조가 부침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 관련 표상의 역동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운석, ... 김솔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학재, 강채연, 김범수, 김병로, 김희정, 이상우, ... 조용신 (2020). 2019 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박주화, 김갑식, 이민규, 최훈석, 박형인, 현인애, 권영미 (2018).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통일연구원.

박주화, 이민규, 조원빈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일연구원.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Steven Sloman, Eran Halperin (2019).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통일연구원.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97-115.

윤광일 (2019).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4), 25-66.

은기수 (2010).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2(2), 35-75.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22(1), 167-206.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2), 74-104.

채정민, 김종남 (2008).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519-544.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33(4), 45-59.
-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19-630.
https://doi.org/10.1037/0022-3514.42.4.619
- Abelson, R. P., & Levi, A. (1985). Decision making and decision theor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1, pp. 231-309). Random House.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Ajzen, I. (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7-58.
-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173-22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Atkinson, J. W. (Ed.). (1958). *Motives in fantasy, action, and society: A method of assessment and study*. Van Nostrand.
- Bar-Tal, D., & Halperin, E. (2013).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L. Huddy, D. O. Sears, &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pp. 923-956).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ler, P. M., & Bon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https://doi.org/10.1037/0033-2909.88.3.588
- Bohner, G., & Dickel, N. (2011).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 391-41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1208.131609
- Breckler, S. J., & Wiggins, E. C. (1989). Affect versus evaluation in the structure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253-271.
https://doi.org/10.1016/0022-1031(89)90022-X
- Cumming, G. (2009).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28, 205-220.
https://doi.org/10.1002/sim.3471
- Eagly, A. H., & Chaiken, S. (1998).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269-322). McGraw-Hill.
- Edwards, K. (1990).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02-216.
https://doi.org/10.1037/0022-3514.59.2.202
- Fabrigar, L. R., MacDonald, T. K., & Wegener, D. T. (2005). The structure of attitudes.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79-12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eather, N. T. (1982). Actions in relation to expected consequences: An overview of a research program. In N. T. Feather (Ed.), *Expectations and actions: Expectancy-value models*

- in psychology* (pp. 53-9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 Gardner, P. L. (1996). The dimensionality of attitude scales: A widely misunderstood idea. *Journa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8, 913-919.
<https://doi.org/10.1080/0950069960180804>
- Hogg, M. A., Abrams, D., & Brewer, M. B. (2017). Social identity: The role of self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 570-581.
<https://doi.org/10.1177/1368430217690909>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9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rosnick, J. A., Boninger, D. S., Chuang, Y. C., Berent, M. K., & Carnot, C. G. (1993). Attitude strength: One construct or many related constru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32-1151.
<https://doi.org/10.1037/0022-3514.65.6.1132>
- Krosnick, J. A., Judd, C. M., & Wittenbrink, B. (2005).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21-7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rosnick, J. A., & Petty, R. E. (2014).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1-2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ee, W. Y., & Lee, H. (2019).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 293-307.
<https://doi.org/10.12759/hsr.44.2019.4.293-307>
- Lavine, H., Sullivan, J. L., Borgida, E., & Thomsen, C. J. (1996).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and personal issue salience to attitude accessibility of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ssues. *Political Psychology*, 17, 293-316.
<https://doi.org/10.2307/3791812>
- Mitchell, T. R. (1974). Expectancy models of job satisfaction, occupational preference and effort: A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81, 1053-1077.
<https://doi.org/10.1037/h0037495>
- Rönkkö, M., & Cho, E. (2020). An updated guideline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https://doi.org/10.1177/1094428120968614>
- Rosenberg, M. J. (1953).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a value theory of attitude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pp. 1-14). Yale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Prentice-Hall, Inc.
<https://doi.org/10.1037/10788-000>
- Russell, J. A. (2009). Emotion, core affect, and psychological construction. *Cognition and Emotion*, 23, 1259-1283.
<https://doi.org/10.1080/02699930902809375>
- Russell, J. A., & Pratt, G. (1980). A description of the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11-322.
<https://doi.org/10.1037/0022-3514.38.2.311>
- Schimmack, U., & Crites, S. L., Jr. (2005). The structure of affect.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397-43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ears, D. O. (2001). The role of affect in symbolic politics. In J. H. Kuklinski (Ed.), *Citizens and politics: Perspectives from political psychology* (pp. 14-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96941>
- Shnabel, N., Nadler, A., Ullrich, J., Dovidio, J. F., & Carmi, D. (2009).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021-1030.
<https://doi.org/10.1177/0146167209336610>
- Skitka, L. J., Mullen, E., Griffin, T., Hutchinson, S., & Chamberlin, B. (2002).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470-487.
<https://doi.org/10.1037/0022-3514.83.2.470>
- Stammel, N., Bockers, E., Neuner, F., Chhim, S., Taing, S., & Knaevelsrud, C. (2017). The readiness to reconcile inventory: Assessing attitudes toward reconciliation in victims of war an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 436-444.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304>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Nelson-Hall.
- Thompson, M. M., Zanna, M. P., & Griffin, D. W. (1995). Let's not be indifferent about (attitudinal) ambivalence.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361-386).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논문 투고일 : 2021. 05. 06

1 차 심사일 : 2021. 05. 13

게재 확정일 : 2021. 07. 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Scale

Hoon-Seok Choi¹⁾

Hayeon Lee¹⁾

Young-Mi Kwon¹⁾

Juhwa Park²⁾

¹⁾Sungkyunkwan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alidate a psychological scale that measures individuals'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Building on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structure of attitude and the attitude-behavior link, we specified two sub-components each representing the cognitive and the affective dimension of people's attitude toward unification. In a survey that involved a stratified sample of Korean adults ($N = 1,500$), we found strong evidence show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ATU-K scale. We also found evidence for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cale. In a second survey involving another stratified sample of 1,500 Korean adults, we found the utility of the ATU-K scale in predicting people's intention to engage in unification-oriented behaviors (personal/collective). We also found that the ATU-K scale fares better in predicting the intention *vis-a-vis* the other measures of unification-related beliefs reported in previous research. We discuss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Unification of Korea,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Unification-oriented behavioral intention, Unification study, Unification policy